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안창*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동은 어학원에서 차량으로 4시간의 거리이며, 학교에서 2인 1조로 구성하여 진행 해준 프로그램 덕분에 학교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하루에 8교시 50분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며, 크게 그룹 수업과 개인 1:1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보다 더 체계적인 수업을 위해 도착 다음날 분반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때 각 개인의 등수를 매겨 수준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루에 8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 할 수 있지만, 전혀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준비 해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재차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영어 향상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과제의 양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날 배운 내용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 과제가 주어졌고, 과제의 내용 또한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내주어서 별 문제 없이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개인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수업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Activity는 총 4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주차에는 필리핀 마닐라 대학투어를 진행 하였고, 2주차에는 인근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3주차에는 인근 리조트에 다녀왔고, 마지막 주차에는 요트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모든 활동이 다 의미 있고 재미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Activity는 요트투어였습니다. 같이 어학연수를 간 인원들만 같은 요트에서 진행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필리핀의 푸른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정말 행복 했기 때문입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우리나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로 낮에는 다소 덥지만 오후에는 바람 때문에 가끔은 초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습하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전	현지의 안전 상황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과 큰 건물부터 작은 건물까지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소	숙소는 어학원의 같은 건물이며, 숙소에 현지 가드가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격일로 현지 직원이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탁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 해주며 만족도 또한 높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주로 어학원 식당에서 식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어학원 요리사 분께서 한국요리만 전문적으로 10년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만족 했습니다.
교통	교통은 외부로 이동 할 때 주로 이용 하였습니다. 이때 FB라는 이동 수단을 통해 이동을 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은 편이며, 마을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50,000	
외부 식비	350,000	
기념품	200,000	
합계	1,335,4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영어 공부를 미리 하고 간다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지에 주요 여행지를 알아보고 간다면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의 준비 사항은 기존 학교에서 정해진 품목을 준비한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며, 1달의 시간 동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의 경비를 준비해 간다면 더욱 알차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는 모기 등 벌레가 한국보다는 다소 많기 때문에 벌레 기피제 와 벌레에 물릴 것을 대비하여 바르는 약등을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필리핀이란 국가의 인식이 다소 좋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치안 부분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고 생활 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의 경찰들은 곳곳에 많이 배치되어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만족 한 부분은 저의 영어 실력이 향상 되었다고 체감한 부분입니다. 가기 전에는 알아듣지도, 단 한마디도 겁이 나서 구사 할 수 없었지만,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뜨게 변화 한 부분은 영어 공부에 흥미가 생기고 어떻게 공부를 하여야 할지 감을 잡았다는 부분입니다. 제 주변인들에게는 강력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강사 분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저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던 부분은 수업 자체만으로 느낄 수 있지만, 수업 이외에도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 강사 분들과 많이 친해 질 수 있었고, 실제로 현지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게는 1달의 시간이 꿈만 같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 투어



T.Madi 와 함께



T.Eric 집 방문



졸업식



함께 같이 간 인원들과 식사



기분 좋게 한잔!